지역 소식통

하이트 병맥주 보조상표에 '소방차길터주기운동' 부착 생산

하이트진로㈜전주공장은 24일 '전북소방본부 소방차길터주기운동' 홍보를 위해 하이트 병맥주에 '소방차길터주기운동' 보조상표를 부착해 생산했다.

전북소방본부 이선재본부장과 전주덕진소방서 강원석서장은 이날 하이트진로를 방문해 '소방차길터주기운동' 보조상표 생산현장을 둘러보고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은 화재초기진화와 인명구조를 위해 가장 중요한 사항이지만 소방차 진입로를 막는 차량들과 양보해주지 않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방차나 구급차 출동시 가장자리이동이나 일시정지등의 양보가 선행되면 화재나 구급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하이트진로 전주공장은 '2009년 대한민국안전대상' 을 수상한 소방관리 우수기업으로 매년 전주덕진소방서와 함께 '취약계층 기초소방시설 기증운동' 을 진행하는 등 관내 소방안전관리활동에 협력해 진행하고 있으며 보조상표를 활용해 지역축제나 지역의 중요한 정책들을 홍보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완주=이중복기자

김제시 모악회, 월례회의 개최

김제시 기관·단체장 모임인 모악회가 8월중 월례회의를 24일 김제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4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이번 월례회의에서는 올 하반기에 연이어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최초 5년 연속 대표축제인 '제19회 김제지평선축제(9.20 ~ 9.24)', 우리나라 종자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제1회 국제종자박람회(10.26 ~ 10.28)', 친환경 농자재 종합전시를 통한 농업인과 생산자 간 정보교류를 위해 추진되는 '2017 김제 농업기계박람회(11.8 ~ 11.10)'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관내 기관·단체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유관기관인 국민건강보험 김제지사(지사장 위성일)에서는 김제시민이 알아야 할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이 이어졌으며 김제시 여성단체협의회는 제19회 지평선축제 수상카페 운영에 따른 홍보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부름부릉~' 브랜드화 나선다

완주군, 특허청 업무표장 등록… 으뜸택시 등 주민이 편리한 이동권 보장

500원 으뜸택시 등 주민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완주군의 '부름부릉~'이 업무표장 등록을 통해 대표적인 교통정책 브랜드로의 발전을 꾀한다.

24일 완주군은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콜택시, 콜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의 통합 고유브랜드 '부름부릉~'을 특허청에 업무표장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상표다.

지난해 7월 특허청에 업무표장 출원 신청을 했으며, 1년여 간의 심사 끝에 최근 표장 등록이 결정됐다.

완주군은 그간 '교통이 복지다'라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으뜸택시, 장애인콜택시, 통학택시, 안심택시 등을 운영해왔다.

특히 콜 시스템을 이용한 교통복지 정책을 부각하기 위해 '부르면 부릉~하고 달려간다'는 의미로 '부름부릉~'을 대중교통수단 브랜드로 확립했다.

이번 업무표장 등록으로 '부름부릉~'은 10년간 완주군이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완주군에서 운영 중인 대중교통 차량 외부에 랩핑돼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높이는데 활용된다.

4일 완주군은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콜택시, 콜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의 통합 고유브랜드 '부름부릉~'을 특허청에 업무표장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부름부릉~' 업무표장 등록으로 '교통복지 1번지'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대중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명실공히 '교통복지 1번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완주=이중복기자

김제시, 갈등민원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갈등해소 방안 · 관리계획 검토 · 합리적 대안 모색

김제시가 직·간접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 행정처분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민원 해결에 적극 나선다.

김제시는 24일 갈등민원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공덕면 중촌마을 축사신축 반대 민원 등 최근 진행 중인 갈등민원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사안별 이해관계자간의 갈등 쟁점을 확인하고 갈등해소 방안과 관리계획을 검토, 토론을 통해 향후 갈등조정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등 갈등현황을 점검하고 관리실태를 평가했다.

이후천 부시장은 "최근 현안정책 추진과 행정처분 과정에서 소통 부족으로 갈등이 양산되는 등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이 반복되어 왔다."며 "더 이상 주민합의에 바탕 하지 않고는 어떤 사업도 추진하거나 성과를 낼 수 없게 되었다."고 보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이어 "갈등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사회현상이나, 갈등을 방치하면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고, 지역공동체 와해와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행정의 최우선 가치인 시민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갈등조정에 필요한 모든 역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각종 공공정책 추진 과정에서 예견되는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분쟁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시민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창작스튜디오 입주 작가 선정 위한 운영위원회 개최

김제시 벽골제아리랑사업소에서는 지난 23일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을 위한 '아리랑문학관운영위원회'를 김제시청 부시장실에서 개최하였다.

금번 운영위원회 회의는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입주기간 만료에 따른 신규작가 선정을 위한 회의로서 지난 8월 3일부터 8월 13일까지 공개모집하여 총 한명이 신청하였다.

입주작가 심사는 적격성, 창작활동, 체험프로그램운영 등의 세부항목으로 평가를 실시하였다.

운영위원회 평가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장동국(61)작가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29호 사기장으로서, 1972년 고려도요에 입문하여 20여회의 개인전 개최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이어가고 있다.

한편 운영위원장인 이후천 부시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입주작가의 창작활동 및 체험프로그램운영 지원을 통한 벽골제관광지 및 지역문화예술활동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그림책의 또 다른 세계 경험해보세요"

완주군, '삼례책마을 그림책 열린 강좌' 운영

완주군이 내달부터 '삼례책마을 그림책 열린 강좌'를 운영한다.

24일 완주군에 따르면 이번 강좌는 그림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자리로 내달 5일부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서 4시까지 총 4회에 걸쳐 삼례책마을 내 북갤러리에서 진행된다.

첫 강연은 그림책협회의 한성옥 회장이 나선다. 그림책협회는 제9의 예술로 '만화'를 평가하듯 제10의 예술로서 '그림책'을 선언하며 지난해 출범한 단체다.

한 회장은 강좌를 통해 '그림책 속 그림 읽기'를 주제로 그림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이어 12일에는 신혜은 그림책협회 부회장이 '그림책으로 마음을 읽다'를, 19일에는 이호백 재미마주 대표가 '종합예술로써의 그림책'을, 26일에는 '개구리네 한솥밥' 오치근 작가가 '그림책은 작은 미술관'을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그림책 연구와 발전에 앞장서서 노력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어렵게 완주에 오는 만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많은 정보를 얻어 가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림림책 강좌는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청 문화예술과 문화마을팀(063-290-3834)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그림책'에 대한 연구는 최근 국내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림책을 미술사의 한 흐름으로, 또한 표현체로서의 구조와 시각적인 미술 측면에도 주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림책의 장르 독립을 법령화해 지원제도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전문가들에 의해 시도되고 있다.

/완주=이중복기자

김제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 전체 교육 실시

김제지역자활센터는 24일 길보른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자활사업 참여자들과 센터 종사자 150명을 대상으로 전체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김제지역자활센터는 2000년 8월에 개소 17년 동안 저소득층의 자활 및 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새롬세차 외 4개의 사업단에 140여명을 배치하여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근로기회와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난 7월 희망나르미 자활기업 창업을 포함하여 11개의 자활기업을 창업해 저소득층의 탈수급 및 자립기반을 마련하는 등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다섯번째 진행되는 전체소양교육은 김제지역자활센터 17주년에 맞추어 개소일(8월24일)을 기념하고 그동안 자활사업 참여자들과 종사자들이 함께 걸어온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등 사기를 진작 시키며 자활사업 참여 주민의 자활의지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희망내일키움통장 사업안내 등을 교육했다.

김복례 자활센터장은 "어려운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용기 내어 지역자활센터의 문을 두드린 분들이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조금씩 웃음을 되찾는 과정은 어떤 드라마나 영화보다 마음속 깊은 감명을 주었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자활·자립 역량을 강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